예불 때마다 큰 發願 세워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激電光中看變動(격전광중간변동)
在我也能遣能呼(재아야능견능호)
於彼也能擒能縱(어피야능금능종)
如磨手腕亦具備(여마수완역구비)
正法眼藏也受持(정법안장야수지)

금일은 어언 여름 석 달 안거(安居)를 마치는 하안거 해제일(夏安居 解制日)이라. 결제(結制)에 임했던 기상(氣像)과 기개(氣槪)로 각고(刻苦)의 정진에 몰두해서 본분사(本分事)를 해결했다면 금일이 진정한 해제가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해제일이 동시에 결제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함이로다.

우리가 출가한 본래의 뜻은 견성성불(見性成佛)이로다.

사람마다 심성(心性)가운데 제불 만조사(諸佛萬祖師)와 더불어 똑같이 불성이 갖추어져 있고, 똑같이 이목구비(耳目口鼻)를 갖추고 있는데 단지 알지 못하는 고로, 쓰지 못하고 있도다.

그러니 모든 대중은 반연(攀緣)을 다 놓아버리고 대신심과 대용맹심으로 삼년 이내에 견성대오(見性大悟)를 하겠다는 각오로 오로지 화두 일념삼매(一念三昧)가 현전(現前)하도록 정진하고 또 정진해야 할 것이라.

또한 조석(朝夕)으로 예불할 때마다 큰 발원(發願)을 세워야 함이라.

역대 제불조사가 발원 없이 깨친 이가 아무도 없음을 알아야 함이로다.

이렇게 간절한 발원을 세워가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심으로 정진해 나간다면 하루하루가 새로워지리라.

이러한 신심과 용기를 갖추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태풍이 불어와도 다 쓰러져 버린다. 이 몸뚱이에 집착하여 먹고 자고 편하려는 마음을 쓰다 보면 공부를 지어 나갈 수가 없도다. 그저 앉으나 서나 화두와 씨름해 가지고 견성해야겠다는 생각 이외에는 다른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됨이로다.

화두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화두를 일상생활(日常生活)하는 가운데 하루에도 천번 만번 챙기고 의심해야 할 것이라.

당나라 시대에 84인의 도인(道人)제자를 배출한 위대한 마조(馬祖) 선사께서 어느 달 밝은 밤에 지장, 백장, 남전 스님의 세 제자와 함께 달을 구경하는 차에, 달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각자 본 바 소견을 드러내 말해 보라."

지장(智藏) 스님이 이르기를,

"正好供養時(정호공양시)로다.

바로 공양하는 때로다"하였다.

백장(百丈) 스님이 이르기를, "正好修行時(정호수행시). 바로 닦아 행하는 때로다"하였다.

남전(南泉) 스님은 손을 흔들며 가버렸다.(拂手而去) 이에 마조 선사께서 점검하여 이르시되, "지장은 경(經)으로 돌아가고, 백장은 선(禪)으로 돌아가고, 오직 남전 만이 홀로 형상 밖에 뛰어남이로다"하셨다.

산승(山僧)이 만약 동참했던들,

明月下에 伸脚臥(명월하 신각와)하니

淸風萬年新(청풍만년신)이로다.

밝은 달 아래 다리 뻗고 누웠으니

맑은 바람이 만년토록 새로움이로다.

산승의 이 일구(一句)는 경(經)으로 돌아감인가? 선(禪)으로 돌아감인가? 형상 밖에 뛰어남인가? 시회대중(時會大衆)은 속히 이르고 일러보라!

마조 선사께서 세 분의 제자를 일일이 점검하시니, 대중은 마조 선사를 알겠는가?(양구(良久)하시다가 대중이 말이 없으니, 스스로 점검하여 이르시기를,)

三介四介閑道人(삼개사개한도인)
月下步行道場中(월하보행도량중)
馬祖道將一句來(마조도장일구래)
各自呈神通妙用(각자정신통묘용)

天龍八部皆合掌(천룡팔부개합장)
三世佛祖心點頭(삼세불조심점두)
祖師家風最堂堂(조사가풍최당당)
東湧西沒不思議(동용서몰부사의)

세 분, 네 분 한가한 도인들이 밝은 달 아래 도량을 거니는 중에 마조 도인께서 일구(一句)를 일러오라 하니, 각각 스스로 신통묘용을 바침이라.

천룡팔부가 다 합장하고 삼세불조는 마음으로 점두(點頭)함이로다.

조사가풍이 가장 당당함이라,

동쪽에서 솟고 서쪽에서 빠지니

사의하기 어렵도다.

깊은뿌리는 삼세에 무성하다

태고종 종정 지허 스님



올해는 윤달이 4월 달에 들어서 4월 초파일을 두 번 지낸 하안거 결제이기에 다른 해와 달리 수행자들이나 일반 사부대중도 더욱 돈독한 수행으로 90일을 지냈을 것이다.

탐진치에 묻혀 살거나 수행의 길을 택하여 살거나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간다. 하지만 뜻이 다르면 맺힌 바가 다르다 하겠다. 승가에 흔히 말하기를 내 마음이 부처라 하고 부처가 내 마음에 있다 한다. 이렇게 흔한 부처와 이렇게 흔한 마음을 보았는가. 보았으면 한번 말해 보라.

泥牛靑天走萬里(니우청천주만리)
木馬海底是弄雷(목마해저시농뢰)
진흙소가 푸른 하늘 만리를 달리니
나무말이 바다 밑에 번개를 희롱하도다

송(頌) 하다.

曹溪將峰浮白雲(조계장봉부백운)
寂廖禪室淸涼風(적요선실청량풍)
無事老衲無空笛(무사노납무공저)
奧妙高低自在中(오묘고저자재중)
조계산 장군봉에 흰 구름 떠있으니
고요한 선실에 맑고 서늘한 바람이로다
일없는 늙은 납자 구멍 없는 피리는
오묘한 높낮이 스스로 그 가운데 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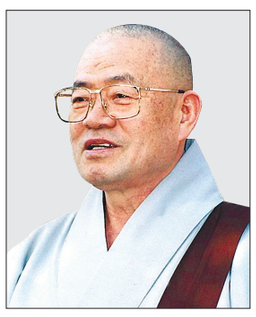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 하나는 중생이 자기 업장에 의하여 알음알이 생각으로 하는 말과 다른 하나는 근본을 철저히 깨닫고 하는 말이 있다. 중생의 부질없는 말은 순간에 사라지거나 아무리 좋은 말도 세월이 지나면 낙엽이 되어 흔적이 없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 수행자의 지표가 되어 깨달음을 돕는다.

"크게 수행한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하고 묻는다면 나는 "시방에 깊은 뿌리, 삼세(三世)에 무성하다"하겠다.

默默閑孤坐(묵묵한고좌)
觀雲後觀月(관운후관월)
一氣能山河(일기능산하)
茶盞靑龍越(다잔청룡월)
묵묵한 한 가운데 외로운 자리
구름을 지극히 본 뒤에 지극한 달을 보네
한 기운이 능히 산과 강이거니
찻잔에 푸른 용이 넘어가네

무념 돌아가 백천삼매 몰록 닦으니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諸緣放下歸無念하면
無碍自在快活人이로다
百千三昧頓修成하니
一一契合佛心意로다

모든 반연을 놓아버리고
무념에 돌아가면
무애자재 쾌활한 사람이로다

백천삼매를 몰록 닦아 이루었으니
낱낱이 부처님 마음과 뜻에
계합하도다

頌曰
兎角杖打空界月하니
晦日夜半照瑞光이로다

三山毒藥成靈藥하니
六道衆生無病人이로다

토끼뿔 주장자로 허공계의 달을치니
그믐달 한밤중에 서광이 비취도다

삼산의 독약이 영약을 이루니
육도중생이 모두 병이 없도다

時會大衆은 之南之北 自由人 이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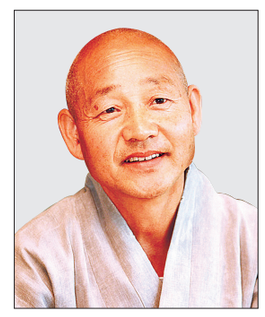
上堂하야 打柱杖
三下云하시되

법상에 올라
주장자를 세 번치고 이르시되

打柱杖一下하고 遂下座하시다
주장자를 한번 치고
드디어 하좌하시다

정중동중이 여일함이로다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火不能燒요 水不能溺이며
風不能飄요 病不能侵이라
軟似兜羅하고 硬如鐵壁이라
天上人間에 古今不識이로다.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이 빠뜨리지 못하며 바람도 날리지 못하고 병도 침범하지 못하도다. 부드럽기는 도라솜과 같고 단단하기는 철벽과 같으니 천상과 인간이 알지 못하도다.

총림대중이 산문출입을 삼가며 하안거 동안 힘써 정진한 까닭은 본래 구족한 지혜덕상을 체득하여 어리석은 마음이 생멸하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때에 중생이 오면 중생의 원함에 응해 한량없는 교화를 펼치나 한 중생도 교화했다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수해가 나고 전염병이 유행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지 않고 수행의 향상을 위해 활용한다면 수행자의 역량을 점검하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선방에서 용맹정진한 수행력과 삼장을 연찬한 안목으로 중생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이 원만히 이루어질 때 부처님의 가르침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감동의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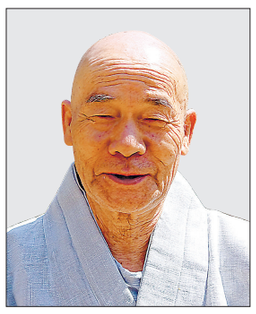
一手擡 一手搦
左邊吹 右邊拍
無絃彈出無生樂
不屬宮商律調新

知音之後徒名邈

한 손으로 들고 한 손으로 잡으며
왼쪽으로 불고 오른쪽으로 치니
줄 없는 거문고로 무생곡 연주하도다
궁상율조에 매달리지 말지니
지음한 후에는 한갓 이름뿐이로다.

미륵의 누각, 극락의 난간이로다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이 여름 구순 하안거 해제를 당하여 소식이 어떠하십니까.

〈법화경〉에 상자적멸상이라, 항상 스스로 고요해서 적멸상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앞에 먼저 와있는 굽이굽이 저 유유히 멋있는 산천들! 〈화엄경〉에 법계의 성품을 보라, 응관법계성 하라. 보고 듣고 응하는 이 물건을 보라고 했습니다.

경허 스님께서는 "화엄경의 응관법계성이나 법화경의 상자적멸상이나 모두가 중생들의 보고 듣고 아는 見聞覺知의 이 자체바탕이다, 차별세상에 둘 아닌 이뭘까로 가닥을 잡으니, 이 자리가 미륵의 누각이요, 여기가 극락의 난간이로다"라고 하셨습니다.

만공 스님께서는 "참선은 부처님의 골수다"라고 하셨습니다. 참선은 이 하는 이 자체 바탕이요,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마하는 뭘 듯이 기뻐 환희용약 하는 외마디 탄성입니다. 우주와 차별세계와 오온이 이 자체로 녹아져 둘이 아닌 알 수 없는 이뭘까 한 덩어리 의심으로 철커덕! 계합이 되었으니, 아! 이 자체의 절대절명이여, 마하반야바라밀입니다.

이뭘까 이 한 구절은 가다듬어 계향이요, 안정되어 정향이요, 돌이켜 혜향이요, 유일무이 해탈향이요, 이뭘까 이 한 구절은 일체에 도움을 주니 해탈지견향입니다. 해탈지견이 일상이 되는가? 만공 스님이 물었습니다.

"금일 대중은 임제의 할을 친하였는가, 덕산의 방을 친하였는가?"

벽초 스님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임제의 할도 친하지 않고, 덕산의 방도 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친하였는가?"

만공 스님의 말이 떨어지자 벽초 스님이 할을 했습니다. 만공 스님이 주장자로 벽초 스님을 한 번 때렸습니다. 벽초 스님이 절을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공 스님이 "전무후무로다. 앞도 없고 뒤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묻습니다. 만공 스님의 이 전무후무는 경책인가, 칭찬인가? 만공 스님이 주장자로 때렸을 때 그대라면 어떻게 했을까? 뜸이 잘 든 밥은 향기가 허기를 진정시킵니다. 어떻게 했으면 만공 스님이 흡족해했을까? 벽초 스님의 효심이 지극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는 행동 보살행은 뿔 난 물고기의 물이오, 학이 소리치며 날 수 있는 허공이다.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이뭘까를 굴리는 힘으로 돌아오게 한다. 세수하고 코풀 때 이놈이 같이 굴러가면 구경원성 살반야가 아니겠는가. 끝없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한복판이다. 이 정성을 바칠 뿐이다.

信心不二 不二信心
可笑尋牛者 騎牛更覓牛
이 물건이 둘이 아니다,
둘 아닌 이 물건이여!
우습다 소찾는 자여, 소타고 소찾나!

만공 스님은 해제하는 날 사홍서원을 일러주셨습니다. 사홍서원을 감당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백억 부처님의 힘의 원동력 이뭘까 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노사의 이 노바심절의 경책을 걸망에 짊어지고 산문을 나섭니다.

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르느니라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수산성념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여하시불법대의(如何是佛法大意)닛고?(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초왕성반(楚王城畔)에 여수동류(汝水東流)로다. (초나라 왕성 주변의 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르느니라.)

수산성념(首山省念)선사는 풍혈연소 선사의 법을 이었으며 여주(汝州)땅에 머물면서 임제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 오대십국(五代十國) 시대의 초(楚)나라가 이 법문의 배경입니다.

여수(汝水)는 하남성(河南省)을 흘러 회수(淮水)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회수는 양자강(揚子江)과 황하(黃河) 사이에 있는 큰 강입니다. 황하만절필동(黃河萬折必東) 즉 황하는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회수도 마찬가집니다.

자공(子貢)이 공자에게 큰물을 관찰하는 이유를 물으니 "만 번을 꺾어서 반드시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동쪽이라는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심(初心)을 절대로 잃지 않으며 또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도리까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 번을 꺾이더라도 동쪽으로 가야한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자 역시 만 번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절대로 '깨달음'이란 본래목적을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문(宗門)의 많은 선장(禪匠)들이 만절필동이라는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했기 때문에 법등(法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산양개 선사는 호남성 담주(潭州)에서 큰 개울을 지나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모습을 보고 크게 깨친 후 "절대로 남에게서 찾지 말라"는 '과수게(過水偈)'를 지었습니다. 용성(龍城) 선사도 낙동강을 지나다가 '과수게(過水偈)' 오도송을 읊었습니다. 재가의 소동파(蘇東坡)거사도 여산(廬山)에서 계곡물을 보고서 '계성변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 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법문'이라는 오도송을 남긴 것입니다.

수산성념선사께 '불법대의'를 물으니 '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번 해제 기간에 만행할 때 만절필동의 정신으로 운수 행(雲水行)을 해야겠습니다. 조용한 물가나 고요한 호수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큰 바다에 이를 때까지 정진 행을 멈추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성반동류수(城畔東流水)
인풍랑역고(因風浪亦高)
강호(江湖)에 유부주(留不住)
도해작파도(到海作波濤)

성 곁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바람에 의해 파도마저 드높구나.
그럼에도 강과 호수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않고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파도가 되는구나.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